

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본격화

나주신협과 원도심 문화발전 상호 협력 약속 나주정미소·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와 시너지

1930년대 나주 지역 최초 극장으로 지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왔던 '옛 나주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나주시는 20일 건물 소유주인 나주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윤성철)과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극장 부지·건물 매입·매각을 시작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나주극장은 앞서 지난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유휴 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은 긴 세월 방치된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재생공간으로 재창조해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물리적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적 재생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나주극장이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면 나주 읍성권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인 나주정미소(난장곡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옛 잠사공장)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 브랜드 가치에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나주천 정비사업 통해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잠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극장 내부 관객석은 2층 구조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1980년대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해오며 시민들의 추억을 보유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시설로 꼽힌다.



1990년대 이후 전면부 등을 일부 개조해 음식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지난 해 2월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해 나주신협에서 매입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부지(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또 (재)지역문화진흥원과 나주극장 현황분석 및 문화재생 방안 수립,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문화재생사업 단계별 추진 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해 2022년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옛 나주극장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는 윤성철 나주신협 이사장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문화의 힘을 키워 유구한 역사문화자산의 보고인 나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화순군,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방향 등 논의해

전남도와 화순군이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라남도는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 산업특구에 대구·충북 오송과 차별화한 '면역 중심 의료서비스업 육성형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오후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확대(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계획, 조성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안 발표 이후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이 '전남 바이오산업 현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필요성',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이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박기영 대학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면역 기반의 세포 치료 및 의료서비스의 세계적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화순백

신산업특구가 예방 백신 중심에서 치료 백신과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 거점으로 발전하고, 예방과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 박병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인신혁 포스텍 교수,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지동현 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원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나서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 왜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지정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고 공간을 이끌어냈다"며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화순이 K-바이오 거점으로, 바이오·치유·첨단 의료 자원을 활용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생산 기지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최순=박진호 기자

"곡성갤러리107, 왜 인자사 생겼을까?"

지역 내 문화 소비자·창작자 욕구 채우고 도시 잠재력 높여



"왜 인자사 생겼을까. 없을 때는 필요한 줄 몰랐는데 응게 읍내 대갈이 달라진 것 같애."

민선 7기 곡성군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골에서도 문화와 교육 등 고양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갤러리107과 컨테이너 갤러리 2동은 그러한 생각의 출발점이다. 지역 내 문화 소비자와 창작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예술을 통해 지역의 수용성과 창의성을 높여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인구 3만도 안되는 작은 시골에 예술과 문화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갤러리107은 군민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지난해 5월 정식 개관한 이후 약 8개월 만에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갤러리107은 외부 유명 작가의 기획전에서부터 지역 작가 전시회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군민과 관광객을 만났다.

올해도 벌써 전시일정이 꽉 찼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래오, 오정훈 작가의 옷칠 공예 전시가 끝나면 바로 곡성미술인 창립전이 계획돼 있다. 이후에도 매달 2~3차례 쉬없이 전시회가 열린다.

인기에 힘입어 곡성군은 올해 컨테이너 갤러리 2곳을 더 조성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갤러리는 길거리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로 곡성군이 지난해 갤러리 107과 함께 읍내 2곳에 조성했다.

이러한 문화시설이 점차 확충된다면 시가지의 매력력이 높아져 관광객 유



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을 지역 교육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올 7월부터 8월까지 '갤러리107 SUMMER ART 쉼린지'를 개최한다. 학생과 일반으로 나뉘어 각각 14일 동안 예술을 직접 창작하고 전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학생들은 유명 예술인으로부터 회화 및 부조를 배우게 되며, 일반 주민 참가자는 지역 작가와 함께 집 문패나 풍경 등을 제작하게 된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쓰세요"

담양군은 인감증명서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사전 등록 없이 발급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이송 등 연간 2,000원 예산 절감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해 서명이 간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인감 수요자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무료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해 체험을 통해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처럼 분실하면 재등록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으면 되는 편리한 증명서"라고 설명하며 "현 인감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발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섬진강 음식특화 마실장 조성

구례군은 냉천삼거리에 위치한 구)농특산물판매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슬기수제비, 우리밀국수 등 휴게소 개념의 특화된 먹거리 점포로 활용하는 "섬진강 음식특화 마실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총 12억원(국비 7, 군비 5)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건물 2동(4개 점포)을 리모델링하고, 야외 구조물을 철거·재배치하여 주차장 증설(당초 71대→변경 93대), 기존 유휴 부지를 활용 1동 30평(2층) 규모로 지역농산물 판

매장 및 휴게소(카페)를 신축한다.

군에서는 지난해 2월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했다. 오는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